

## 전주국제영화제와 함께하는 NEW ITALIAN FILM

이탈리아 외무부는 이탈리아 영화를 해외에 홍보하고 보급하기 위해, 전 세계에 분포된 이탈리아 문화원과 협력하여 2년 전부터 세계이탈리아영화주간을 “FARE CINEMA”라는 명칭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하는 세계이탈리아영화주간을 맞이하여, 주한이탈리아문화원은 전주국제영화제와 협력하여 최근에 제작된 이탈리아 영화 3편을 선정하여 한국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전주국제 영화제 개막작인 ‘나폴리: 작은 갯들의 도시’의 감독 클라우디오 조반네시와 ‘산티아고, 이탈리아’의 편집자인 클레리오 베네벤토가 전주국제영화제행사를 마치고 서울 상영회를 방문하여 관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 상영작:

2019년 5월 4일: 나폴리: 작은 갯들의 도시\_La paranza dei bambini\_Piranhas

상영후 Claudio Giovannesi 감독과의 만남

2019년 5월 12일: 산티아고, 이탈리아\_Santiago, Italia

상영후 Clelio Benevento 편집자와의 만남

2019년 5월 13일: 결혼의 조건\_Flesh out

상영장소: CJ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1관, 10층

전석 초대 상영

문의: [iicseoul@esteri.it](mailto:iicseoul@esteri.it)

**나폴리: 작은 갯들의 도시**    **La paranza dei bambini\_Piranhas**  
Italy 2018 110    color    감독: 클라우디오 조반네시

니콜라를 비롯한 열 명의 10 대 소년들은 어른들의 마약 밀매 사업을 도우며 세력을 늘려나간다. 새로운 스쿠터를 구매하여 나폴리의 골목을 질주하고, 총을 사들여 어른들의 조직을 잠식해가기 시작한다. 새로운 실세가 된 니콜라는 시장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위해 가구를 사들이고, 다른 구역에 있는 소녀와도 사랑에 빠지게 된다. 이들은 관행처럼 행해지던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을 멈추고 존경까지 받으며 구역을 확보해 나간다. 그것은 다른 구역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소년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심지어 니콜라의 동생과 또래 아이들이 형들의 행동을 흠모한 나머지 총을 들고 남몰래 거리로 나서는 사태로 이어진다. 『고모라』의 원작자로 널리 알려진 로베르토 사비아노의 동명 소설을 옮긴 이 작품은 질주하는 청춘들의 모습과 이면을 고전적인 스타일의 영상미를 통해 포착해낸다. 이탈리아의 떠오르는 감독인 클라우디오 조반네시는 성장의 이면을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누아르 스타일로 그려내면서 나폴리의 곳곳을 속도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올해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되어 각본상을 받았으며, 성장 영화의 표본과도 같은 영화이자 에너지와 비극적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산티아고, 이탈리아**    **Santiago, Italia**  
Italy, France, Chile 2018 80    color    감독: 난니 모레티    난티 모레티

1973년 9월 이후, 칠레의 장군 피노체트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뒤, 산티아고에 있는 이탈리아 대사관은 수백의 망명 신청자를 불러들인다. <산티아고, 이탈리아>는 그 당시를 거친 주인공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탈리아 외교관들이 무수한 인명을 구해냈던 극적인 이야기를 풀어간다.

**결혼의 조건**    **Flesh Out**  
Italy 2019 94    color    감독: 미켈라 오키핀티

베리다는 미용실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소셜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다. 그녀는 가족들이 정해진 남자와 약혼한 상태이다. 또래의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결혼을 앞두고 풍만한 몸을 아름답게 여기는 전통에 따라 강제로 살을 찌워야 하는 상황이다. 점차 결혼이 다가올수록 그녀는 자신이 평범하다고 여겨왔던 것들과 부딪히게 된다.